

CELAC: 탈식민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

안 태 환**

부산외국어대학교

안태환(2013), CELAC: 탈식민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

초 록 2011년에 설립된 CELAC(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공동체)은 탈식민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이다. 즉, 유럽중심주의적 위계서열의 세계체제로부터의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적 위상의 확보를 의미한다. 또는 근대성/(탈)식민성 기획의 시각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라틴'과 '아메리카'의 해체 즉, "라틴아메리카 이후"의 시기로 진입한 상징적 사건이 CELAC이다. 2004년의 ALBA(미주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와 2007년의 UNASUR(남미국가연합)에 이어 탈식민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의 커다란 진전이다. CELAC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브라질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제도적 법률적 기구라기보다 연대적 포럼 형식이다.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모든 국가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의 500여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의 아메리카"(Nuestra América)의 꿈의 실현의 시작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OAS(미주기구)의 장기적 대안으로도 간주된다. 또한 미주기구에는 쿠바가 제외되었는데 CELAC에서는 쿠바가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 주목된다. ALBA가 물물교환과 '선물주기' 철학에 기초한 일부 지역 국가들의 대안적 비자본주의적 통합운동이고 UNASUR가 남미의 외교적, 군사적 동맹과 의회협력을 중시한다면 CELAC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연대적 포럼이자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 기능하려고 한다. 특히 CELAC은 유럽세력(미국 포함)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에서 "남이 곧 북이"라는 인식론적 전환 즉 탈식민적 전환을 보여준다. 동시에 19세기 후반부에 정립된 '라틴'아메리카의 '라틴'이 함축하는 내부적 식민성을 깨트리고 '아메리카'라는 호칭도 "식민적 차이"로 해체하고 있는 현재의 "라틴아메리카 이후"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도 탈식민적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과의 연대와 대중의 이익 확보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도 탈식민적이다. 근대적, 개인적 인권을 넘어서는 사회적 인권의 시각을 매우 중시한다. 다시 말해, CELAC의 출범은 비가시적 이지만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무의식적 삶의 방식에 녹아있는 '사회적 연대'의 힘이 추동해낸 것이다.

핵심어 탈식민성, 라틴아메리카이후, '유럽'으로부터의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적 위상, 대중과의 연대, 사회적 인권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AB00159)

**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HK교수

I. 들어가는 말

2004년 출범한 “미주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과 2007년 출범한 “남미국가연합”(UNASUR)에 이어 차베스의 리더십에 의해 2011년 12월 2-4일 카라카스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제외된 33개국으로 이루어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므로 CELAC은 별도의 조직체계의 협정이라기보다는 ALBA와 UNASUR를 밀접하게 아우르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위한 연대적 포럼이다. CELAC의 출범은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이며 동시에 커다란 인식론적 변혁이다. 아주 복합적인 수준의 변혁이다. 가장 중요한 수준에서 탈식민적이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에 의해 16세기부터 정복되고 지배되었다. 하지만 유럽의 중심국가가 아닌 스페인이 통치하던 시기가 지난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중심주의 세력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의 ‘라틴’이 강조된다. 이는 곧 ‘내부적 식민성’을 함축하며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배제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핵심적 유럽중심주의 국가인 미국에 의해 라틴아메리카가 ‘아메리카’로 호명되는 식민적 억압과 폭력적 지배를 당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부상하면서 실천적, 인식론적 수준에서 유럽중심주의의 단일 보편성을 거부하는 “식민적 차이”(미놀로 2013)에 의해 ‘라틴’과 ‘아메리카’를 해체하려는 “라틴아메리카 이후”(미놀로 2013, 167-240)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의 결실이 CELAC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탈식민적 통합운동이다.

80년대 후반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총노동과 총자본사이의 역할은 후자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세계화 담론이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도왔다. 이 같은 세계화의 주역은 “국경을 넘는 부르주아”(Santos 2007, 153)이다. 즉, 초국적 기업들을 말한다. 이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통합모델 즉 신자유주의적 지역통합의 등장을 의미한다. 예를 든다면, “북미 자유무역협

정”(NAFTA)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90년대 초까지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평정하는 듯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학자가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 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세계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혁명적으로 실천하려는 정치지도자가 등장했다. 1998년에 집권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라틴아메리카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고 구체적 대안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서 결정적인 시기가 2005년 11월이었다. 마르 델 플라타 제 4차 미주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전 미주 자유무역협정”(ALCA)구상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Briceno Ruiz 2006, 41). 이후 2006년에 전통적 지역통합운동의 상징이던 “안데스 공동체”(CAN)에서 베네수엘라가 탈퇴하여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가입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2006년을 계기로 베네수엘라를 고리로 하여 MERCOSUR와 CAN, ALBA가 서로 간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지역통합운동이 단순한 경제중심주의에서 사회적·정치적 함의를 가지는 방향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CELAC 출범도 차베스 못지않게 브라질이 주도한 것이다. 그렇다고 통합의 동기를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다. 오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흐름을 전환시키려는 역사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

이미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 라틴아메리카의 마야, 잉카 등 고대 제국은 상당한 정도로 통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유럽세력은 강제로 라틴아메리카를 세계시장에 편입시키면서 종속적 지배를 통해 중상주의적 자본주의의 외길을 강요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이런 틀로부터 해방되어 라틴아메리카의 앞길을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CELAC이다. 따라서 세계의 주류 언론들이 CELAC의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 또한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장기적 작업이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그동안 종속적 중상주의적 자본주의의 체계 안에서 일차산품 위주의 대

외 수출로 형성된 국가별 과두지배계급의 이익이 통합보다는 분리를 선호해왔기 때문에 그 극복 또한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Dos Santos 2013, 1).

19세기 이후 세계체제에서 주변부로 기능했던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원주민, 농민, 도시의 빈민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 같은 대중의 요구를 받아 안은 좌파 포퓰리스트¹⁾ 지도자들에 의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 급진적 민주주의 정부들이 집권하였다. 다시 말해 차베스 정부를 비롯한 이들 정부들이 만들어낸 국가 정체성은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운동²⁾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같은 90년대 이후 유럽 중심주의적 근대성에 대한 인식론적 단절 즉 근대성/(탈)식민성 기획이 출현한다.³⁾ 따라서 CELAC은 다양한 수준의 식민성⁴⁾을 단절하려는 실천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이다. 우선 식민성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 1) 라클라우에 의하면 포퓰리즘은 한 사회의 정치적 정체성을 분석하는 도구로 인식된다. 즉, 계급투쟁과는 다른 경로의 인식론적 도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포퓰리즘과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파 또는 좌파 포퓰리즘이 가능하다. “대중의 요구”라고 할 때의 대중은 일반 시민 대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몹 없는 사람들” 즉,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배제된 가난한 대중을 의미한다(안태환 2012b). 따라서 차베스는 포퓰리스트이다.
- 2) 90년대 이후의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운동은 “대항 헤게모니적 사회운동”(Santos 2006) 또는 “대안적 사회운동”(Santos 2009)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새로운”이란 형용사를 붙이는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대안적’ 또는 ‘대항적’ 흐름과는 조금 다른 ‘문화적 정체성’의 사회운동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연히 유럽의 “신 사회운동”의 발생 맥락과 정치적인 의미와는 다르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사회포럼”을 들 수 있다.
- 3) 인식론적 단절은 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에 의한 “근대성/(탈)식민성 기획”의 핵심이다. 자세한 것은, 안태환(2009), 김은중(2009b)을 참조. 특히 포르투갈의 사회학자인 보아벤투라 데 소우사 산토스는 ‘성장과 개발’ 신화의 인식론적 뿌리가 되는 유럽 중심적 근대성의 일직선적 미래지향성을 비판하고 현재를 두텁게 하기 위해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적 약자와 자연과의 연대를 주장한다(안태환 2012a).
- 4) 식민성은 유럽과/비유럽(타자)의 대비에서 나오는 매우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위계 서열’의 정당화 개념이다. 그리고 집단적 무의식 특히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과 상응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중은 식민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오랫동안의 교육과 미디어 등에 의한 지식 전달에 의해 대중이 가지게 되는 ‘상식’의 수준, 다시 말해 모든 사회관계와 권력관계의 영역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식민성은 자본주의 권력이 주도하는 세계 체제의 특징적인 구성적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전 세계 인구의 인종적/종족적 구별을 자본주의 권력관계의 근본적 추동력으로 삼고 있다. 일상적 사회관계와 사회적 존재의 물질적, 주관적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서 식민성이 작동된다. 그리고 식민성은 바로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시작되었고 세계로 확산되었다.(Quijano 2000, 342)

라틴아메리카에서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근대성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필자가 동의하는 시각은 월터 미놀로, 엔리께 두셀, 아니발 끼하노 등이 주장하는 대로 1492년을 근대성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두셀 2011; 미놀로 2013). 이는 근대성을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 이후의 합리주의와 역사의 진보로만 인식하는 주류적 틀을 거부하는 것이다. 16세기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유럽 세력의 정복과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인종적 차별성 즉 ‘위계서열’의 식민성이 근대성의 숨겨진 구성요소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16세기 초에 스페인에 의해 정복이 시작되면서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는 그냥 “인디아스 누에바스”(새로운 인도) 또는 “새로운 세계”로 불리었다. 그리고 16세기 초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정착된 경제 구조는 광산물의 유럽수출이었다. 이후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1차산품의 유럽 및 미국으로의 수출은 라틴아메리카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제의 재생산구조를 이룬다.

90년대 이후 소위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과 새로운 사회운동세력에 의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른 세계’의 대안을 추구하는 노력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⁵⁾ 이 같은 국면에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오랜 숙원인 라틴아메리카의, 라틴아메리카를 위한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⁶⁾의 출범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세계

-
- 5) 베네수엘라의 대항 헤게모니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인 ALBA(안태환 2011) 외에도 에콰도르와 볼리비아가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다른 세계’의 대안들에 주목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미션”사업에 대해서는 김은중(2009)을 참조하고 에콰도르의 개혁을 통한 탈식민적 국가개혁에 대해서는 김달관·조영현(2012)을 참조.
- 6) 흥미로운 것은 2001년부터 스페인어 약자로는 동일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연구 센터’(CELAC)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 센터의 소장

의 주류 언론 매체들은 CELAC이 예산도 없고 상설 사무국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CELAC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다(Pearson 2012, 3). 실제로 CELAC은 상설 사무국이 없고 매년 회의가 개최되는 나라에 임시 사무국이 설립된다. 그렇지만 CELAC의 출범은 라틴아메리카가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속설에서 벗어날 정도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가장 낮아졌음”(스미스 2012, 366)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겠지만 CELAC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한다. 동시에 라틴아메리카가 유럽 중심적 위계서열의 세계체제로부터 탈주를, 즉 탈식민적 의미를 가진다. 더 이상 미국이나 유럽에 의해 휘둘리는 라틴아메리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주변부가 아니라 ‘또 다른 중심’이라는 선언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정상들이 매년 모여 단순한 선언만 하더라도 엄청난 무게를 가지므로 비조직적 포럼이라고 해서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CELAC에 대한 선행연구로 에드가르 비에이라 포사다(Edgar Vieira Posada, 2008)는 기존의 지역통합운동과 UNASUR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강경희(2012)는 ‘신’지역주의의 관점에서 CELAC을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지역주의 리더십’의 개념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켈로그(Kellogg 2007)는 베네수엘라 주도의 ALBA와 브라질 주도의 UNASUR를 미국 주도의 라틴아메리카 통합에 대한 도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스미(Ismi 2012)는 CELAC의 출범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미국 영향력의 퇴조로 해석한다. 브리세뇨 루이스(Briceno Ruiz 2006)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접근을 매우 중요한 변화의 동력으로 이해한다. 이들 나라들이 미국 헤게모니의 의존에서 벗어나 상호 경제 사회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바스케스(Vázquez 2006)는 60년대 이후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지역통합운동이

은 전직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하이메 루신치이다. 그는 반 차베스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CELAC의 이름은 자신이 먼저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www.celac.org/ImpactoCna.html, p. 1.(2012.12.26.)

외국자본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개방을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조펠(Zopel 2008)은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이 라틴아메리카가 독립성을 가지는 필수 전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들을 참조하여 CELAC이 탈식민적 통합운동이라고 해석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90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의 라틴아메리카 통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출발점이 90년대 이후의 유럽 중심적 근대성과 위계 서열적 차별성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인식론적, 실천적 단절과 CELAC 출범의 상관성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다. 위계서열적 차별성(식민성)의 맨 아래에 있는 ‘대중’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움직임으로 CELAC을 바라보려는 것이다.

II. 60-80년대의 전통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 ‘시장 확대와 국가발전’

식민지 시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정치적, 영토적 지배자는 스페인이었다. 하지만 19세기 독립이후에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경제적, 통상적 지배가 본격화되었다. 국내 상품을 압도하는 영국과의 통상의 결과로 라틴아메리카 자체의 산업 생산은 처참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도 못했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부르주아도 형성되지 못했다(Posada 2008, 90). 정치적으로도 182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 약 50년 동안 매우 불안정하였고 초보적 수준의 근대국가를 건설할 능력도 가지지 못했다.⁷⁾ 19세기 내내 개별 국가들의 국가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같은 역사적 요인은 20세기에 들어와 라틴아메리카 각국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통한 산업 발전과 근대화를 지상명제로 만들게 된다. 이런 역사적 과제는 1930

7)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세기 내내 토지소유와 분배의 불평등, 경제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을 개혁할 엄두를 거의 내지 못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1910년에 학교 교육을 받는 비율이 불과 6%였고 문맹자가 80%이상이었다(Fell 2009, 10-11).

년대부터 주로 포퓰리즘정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 당시 노동자 대중의 요구가 많이 경제정책에 반영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 반대하여 “미주 개발은행”(BID), “진보를 위한 동맹”, “국제 개발처”(USAID)등을 창설하였다(Dos Santos 2013, 2). 그리고 50년대 말부터 라틴아메리카는 ‘발전주의’ 모델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것과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운동은 ‘자유무역’을 둘러싸고 서로 밀접한 상충성을 가진다. 즉, 각 국별로 협소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유무역 지대 창설을 목표로 한다. ‘시장 확대’와 ‘국가 발전’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이를 유엔의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CEPAL)가 지원했다(Posada 2008, 95). 예를 들어 1960년에 설립된 “자유무역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연합”(ALALC)을 말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이 주도했고 11개 주요국가가 참여했다. 중요 아젠다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려는 것이었다.⁸⁾ 이 같은 무역 자유화협정을 통한 지역통합 전략은 70, 80년대를 거쳐 90년대 초까지 적용된다. 이는 1830년대의 몬로주의가 발전하여 1880년대부터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팽창정책을 위한 전략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개방과 연계된 것이다(Vázquez 2006, 56).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흐름은 20세기 말의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을 내세운 지역통합 전략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상기 협정은 설립된 지 20년이 지나도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대신 1980년에 자유무역지대 설립 기한을 정하지 않는 구조인 “통합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연합”(ALADI)으로 바뀐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수 십 년 전부터의 자주적 산업화 모델과 개별 국가들의 미국과 유럽시장을 향한 통상의 증대 전략과 자유무역지대 설립 모델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남미공동시장”의 경우와 달리 오직 상품의 교역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즉 경제주의적 통합만을 지향하였으므로 실패한다.

8) http://es.wikipedia.org/wiki/Asociaci%C3%B3n_Latinoamericana_de_Libre_Comercio, p. 1.(2013.2.5.)

이 모델은 일직선적 성장과 개발의 근대화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재적 목적론’을 함축한다. 현실적으로 계급사이의 갈등과 요구의 해결을 중시하는 정치적 발전보다는 국가의 산업생산 능력을 확장시키는 모델이다. 또는 달리 말해, 외세 지향적인 부르주아 형성을 겨냥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구조적으로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국가의 발전은 주권적 독립이 전제가 되는데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맥락에서 자주적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나친 종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50년대 후반부터의 ‘국가발전’ 모델은 미국과 유럽세력에의 구조적 종속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국가발전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사회적으로 평등성을 지향하는 탈식민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에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적 문제의식이 현실화되기에는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적 지배력을 가져온 약 60여 년 동안 힘들었다. 왜냐하면 좌파의 반 헤게모니 세력이 가지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연합과 동맹을 위한 추진력이 각 국별로 이익을 추구하는 분리의 힘을 극복하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Posada 2008, 176).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통합을 위한 객관적, 주관적 조건이 성숙되었다.

60년대 후반 이후에 일부 지역 국가들에 의한 지역통합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유엔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CEPAL) 덕분이었다. 미약한 산업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즉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는 ‘공동시장’ 건설의 기획이 나오게 된 것이다(Posada 2008, 95). 그리하여 60년대 후반부터 작동되기 시작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의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방식의 지역 통합운동이 일부 국가들에 의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중미 공동시장과 1968년에 설립된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 CAN)를 들 수 있다. 주로 경제 통상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 자유무역지대, 대외 공통관세, 공동시장 설립 등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통합운동중의 하나인 “안데스 공동체”도 현실적인 움직임이 매우 느렸다. 수사에 비해 실천이 느렸다고도 할 수 있다.⁹⁾ 그렇게 된

맥락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시장 확대 위주의 전통적 지역 통합운동은 지역의 과두지배계급(Oligarquía)에게만 이익을 주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은 경제적 수준을 넘는 정치, 사회적 맥락의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통적 지역 통합운동과 CELAC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은 경제주의에서의 이탈이 주된 차이점이다. 그리하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의 감소를 중요한 통합목적으로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남미공동시장”도 이전의 통합운동과 달리 경제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주 노동자 보호 등 사회적 통합과 역내 무역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¹⁰⁾ 그 후 90년대 후반 이후 라틴아메리카 정치지형이 좌파 우위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지역통합운동의 자유주의적 리더십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 대신 대중의 요구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로서의 새로운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이 구체화 된 것이다(Dos Santos 2013, 3).

III. CELAC: 탈식민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

‘라틴아메리카’라는 용어는 1860년대 이후에 쓰이기 시작했다. “라틴아메리카”는 1860년 이전에는 하나의 범주나 지역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프

-
- 9) 예를 들어, 1968년에 창설된 안데스 공동체(CAN)의 경우 설립된 지 38년 만인 2005년에야 겨우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다(Posada 2008, 123). 하지만 2006년 4월 역내 경제 강국인 베네수엘라가 CAN으로부터 탈퇴하고 MERCOSUR에 가입한다. 이로써 안데스 공동체는 지역통합운동으로서의 동력을 많이 잃게 된다. 하지만 향후 정치 사회적 그리고 지정학적 의미의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통합운동은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UNASUR와 CELAC의 출범에 차베스가 이끄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상호 협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 10)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출범한 메르코수르는 상대적 성공을 거둔다. 역내 중심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내수시장이 워낙 커서 메르코수르 역내 교역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7년의 역내 수출 실적은 약 320억불에 이른다(Maldaner 2010, 46). 이에 비해 안데스 공동체(CAN)는 역내 교역규모가 적어 대외 지향적 성격 특히 미국과의 경제, 통상이익이 중요한 변수가 되어있다.

랑스 제 2제정, 즉 나폴레옹 3세의 ‘근대적’ 발명품이다”(화이트헤드 2008, 273).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19세기 후반부터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세력은 보수주의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자유주의적 근대성의 제도화(의회주의, 정당주의, 삼권분립 등)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헤게모니 도구로 삼게 된다. 라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인 백인 크리오요가 혼혈인 메스티소를 통합하게 되면서 자유주의적 근대국가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내부적 식민성’이 강화된다. 외부적 식민주의는 이미 당시 제도적으로 종식되었기 때문이다. ‘내부적 식민성’은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주민을 억압하는 차별성을 함축하는 용어이다.¹¹⁾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라는 호칭 속에는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세력이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의미가 녹아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이 급진적 체제 변혁을 추동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들이 주도한 근대성/(탈)식민성 기획이 등장한다. 이들은 16세기부터 유럽중심주의 세력(현재는 미국을 포함)이 “권력과 지식의 식민성”(미놀로 2013)을 통해 세계 체제의 위계서열 구조를 확립하였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식민성이 근대성과 자본주의의 기표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아메리카’를 해체하여 진정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과 통합, 즉 볼리바르의 꿈을 차베스가 선도하며 CELAC의 출현까지 이르게 된다. 바로 이런 탈식민적 과정을 ‘라틴아메리카이후’(미놀로 2013, 167)로 호명한다.

이에 비해 1960년대 이후 시동이 걸린 전통적인 방식의 지역 통합운동은

11) 19세기 후반부에 떠오른 ‘라틴’아메리카의 구상은 프랑스에 의해 진전되고 있던 ‘라틴성’의 구상에 서로 다른 정도로 의존했다. 라틴성은 구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들이 새로운 글로벌한 근대적/식민적 세계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이 시기는 ‘라틴성’이 유럽의 제국적 갈등의 맥락에서 제국적 차이를 재구성하려는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되는 시기였다. 19세기에 제국적 차이는 유럽 안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라틴아메리카라는 이름은 제국적 국가들 사이의 갈등의 결과로 부상했다. 즉,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제압하고 남에서의 문명화의 사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Mignolo 2005, 58).

‘내부적 식민성’을 전제하고 역내의 무역을 증진하는 시각에서 펼쳐진 것이다 (Teichman 2008, 124). 무역의 증진 외에 유럽세력의 헤게모니적 우위는 국내 외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국내의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주민들은 배제되어 왔다. 사실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세력은 스페인의 정복부터 시작해서 약 500년 동안 억압되고 배제되어왔다. 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난한 대중도 철저히 배제된다. 이런 오랜 흐름이 2011년 CELAC의 출범으로 전복되기 시작한다. CELAC의 출범과 가난한 대중의 해방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차베스의 CELAC 개막 연설을 들어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착취되고 무시되는 종속적 뒷마당이 될 것인가? 자, 이제 되었다. 오늘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단합과 독립과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으려고 한다. 만일 우리가 망설인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CELAC은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다. 즉 대중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기반인 것이다. (Ismi 2012, 16 재인용, 강조는 필자)

여기서 차베스가 언급하는 대중의 ‘사회적 발전’이란 바로 CELAC이 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중시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위해서는 해방을 억누르는 유럽 중심적 세계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의 통합과 독립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CELAC은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의 미주기구(OAS)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De la Barra & Dello Buono 2012, 32). 기존의 미주기구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포함되고 쿠바는 제외되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를 결합시키려는 ‘범미주의’로부터의 이탈이다. 2013년 1월 27-28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제 2차 정상회의가 열렸다. 새로운 의장국으로 쿠바가 뽑혔다. 이렇게 이념적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나라들이지만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즉 CELAC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좌파 성향의 ALBA 회원국들 외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칠레 등 중도 좌파와 우파 정부들까지 힘을 합쳐 만든 것이다.¹²⁾ 쿠바 외에 아이티와 코스타리카가 3개국 위원회

12) 2011년 12월의 CELAC 창설회의에 참석한 우루과이 대통령 페페 무히카는 “교조주의”를 버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국가들을 포용해야

를 구성하며 2015년 임시의장국으로 에콰도르가 지명되었다. CELAC이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포럼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임을 밝히고 있다. 제 2차 정상회의의 일주일 전에 EU와 비즈니스 정상회의가 열린바 있다(Pearson & Robertson 2013, 1). 이 같은 적극적인 라틴아메리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의 일부는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와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 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브라질의 개입이 결정적이다(Dos Santos 2013, 2).

최근에 와서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에 적극적인 맥락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거대한 국제 금융 자본의 힘 앞에서 통합하지 못한 개별적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외채위기로 인한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침략과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간섭에도 힘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Soliz Rada 2004, 1).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UNASUR와 CELAC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수사에 비해 “초국가적인 규범과 조직의 부재”를 들어 실효성이 떨어짐을 비판하고 있다(Posada 2008, 449).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은 도로 등 실질적인 인프라 통합의 속도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CELAC의 유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 최근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것이지만 지역 내 경제 강국인 독일과 남유럽 국가들 사이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적 차이를 화폐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CELAC과 같이 거시적 통합과 현재의 개별 국가별 경제정책 분리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역통합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탈식민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으로는 예를 들어 UNASUR와 “남미은행”(Banco del Sur) 창설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외에 룰라와 후계자 지우마가 이끄는 브라질의 개입이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브라

합을 강조했다(www.celac.gob.ve/index.php?view=article&catid=1%3Aactualidad&id=277%3...). (2012.12.26.)

질 헌법에는 라틴아메리카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브라질에게 있어 아르헨티나와 MERCOSUR가 전략적으로 최우선이고 두 번째가 UNASUR 즉 남미의 통합이고 세 번째가 CELAC 즉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통합이다(Dos Santos 2013, 2-3).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비록 급진좌파와 중도좌파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의 요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하는 정치지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온건한 성향의 “유엔 경제위원회”(CEPAL)도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의 이익을 위한 통합운동인 ALBA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Dos Santos 2013, 3).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세 국가들 사이의 상호 협력의 촉매 역할은 아르헨티나가 맡았다. 2003년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아르헨티나에서 중도 좌파이며 신자유주의적 정책 방향을 반대하는 끼르치네르가 집권한 것이 분기점이었다. 90년대 초에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은 미국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 상기의 전통적 지역통합운동과는 성격을 약간 달리한다.¹³⁾ 훨씬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경제통상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둔 공동시장 설립의 예가 된다.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통합과 시장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회원국들이 서로 미국, 유럽 등 시장으로의 1차산품의 수출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고 각국의 경제적 지배권을 가진 기득권 계급 사이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상당한 정도로 공업 수준이 발전한 나라들이라 상호 교역의 이점이 큰 것이다.

13)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이후 대중에 의한 정권 교체를 통해 신자유주의 추종노선과 거리를 두는 끼르치네르의 개혁정책이 2003년부터 실시된다. 그리고 ALCA가 메르코수르 농축산물의 미국시장 진입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미국정부가 자국 농업보조금의 감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ALCA에 반대하게 된다(Lander 2004).

1. '유럽'으로부터의 독립적 위상 확보

CELAC은 단순한 인프라 통합¹⁴⁾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헤게모니에 대응하는 대항 헤게모니적 세계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 맥락은 90년대 이후에 시작된 라틴아메리카의 대항 헤게모니적 사회운동이 새로운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미국) 세력권의 헤게모니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미에서 기존의 지정학적, 정치적 궤도로부터 이탈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이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달리 라틴아메리카의 고통 받는 대중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인식론적 전환을 보여준다. 이렇게 90년대 이전의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지역통합운동의 방향과 매우 다른 대안적 지역통합운동이 CELAC이다. 예를 들어, '북'과 '남'의 관계에서 "남이 곧 북이다"(Vázquez 2006, 61)¹⁵⁾라는 주장이 상징적이다. 16세기부터 시작되어 오랫동안 위계 서열적으로 '남'은 항상 '북'을 따라야 하는 단일 보편성의 세계체제에서 벗어나 '북'과 '남'이 대등함을 넘어 '남'이 주도하는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함을,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가능함을 함축하는 표현이다.

이 같은 CELAC의 출범은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근대성의 핵심인 일직선적 진보의 국가발전의 담론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통합운동이다. ALBA의 경우에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미래의 국가발전과 생산력 발전보다는 ALBA회원국 대중의 '현재'의 이익을 위한 물물 교환적, 선물주기 방식의 비자본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안태환 2011). 따라서 회원국 시장의 경제적 팽창보다는 회원국 대중의 직접

14) 특히 콜롬비아가 중심이 되어 인접국가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와 인프라 통합이 진전되고 있다(Posada 2008, 337).

15) 현재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시장만능주의를 내세우면서 오직 시장만이 효율성과 통합성을 가짐을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적 시장 통합전략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보야벤투라 데 소우사 산토스는 "남의 인식론"을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보편성을 가지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 세계에는 인식론적 다양성이 무한히 존재함을 강조한다. 유럽중심주의의 근대 과학적 인식론과 '다른' 인식과 실천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이 제시하고 있다(Santos 2006, 13).

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요구(예를 들어 의료, 교육 등)를 무상으로 도와준다. 이를 근대성의 핵심인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를 두텁게 하는 것으로”¹⁶⁾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탈식민적 수준에서 세계체제에서 유럽 중심 세력에 종속된 위치로부터 벗어나 자주적 ‘독립’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 12월에 카라카스에서 열린 CELAC 창립총회의 선언문에서 미국의 쿠바 경제 봉쇄에 대한 거부에 전체 회원국 33개국이 동의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섬(포클랜드 섬)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확인했고 볼리비아의 바다로 나가려는 숙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Karg 2011, 1).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적 위상 확보에 대해 프랑스 텔레비전에 고정적으로 기고하는 독립 언론인인 환 칼데론(Juan Calderón)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식민지시대 이후 자신들의 발전 모델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과 라틴아메리카만의 통합과 단결을 유럽 세력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CELAC의 출범은 매우 역사적이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 CELAC은 UNASUR의 계속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이 메일 인터뷰, 2012년 10월 25일, 강조는 필자)

위의 인용에서 “유럽세력은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을 향한 열정을 막아온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의 정치적 지배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식론적으로 탈식민적 전환의 의지를 보여준다. ‘탈식민적 전환’이란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인들 스스로 유럽문화를 우위에 놓는 집단적 무의식 또는 문화에 새겨있는 위계 서열적 구별에 대한 상식과의 단결을 의미한다. 전통적 통합운동이 가지는 개별 국가의 경

16) “현재를 두텁게 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비전이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의 ‘다른’ 인식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아벤투라 데 소우사 산토스가 유럽중심적 합리주의와 근대성의 인식론적 태도가 ‘현재’를 과거와 미래 사이의 도망가는 순간으로 인식하면서 일직선적 시간개념을 통해 미래를 무한으로 확장시킨다고 이를 “확장된 이성”(razón proléptica)이라고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미래’의 발전 보다는 ‘현재’의 대중의 요구를 중시하는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다(Santos 2005; 안태환 2012a).

제주의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인 수준에서 라틴아메리카 대중 고유의 ‘삶의 방식’(way of life)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CELAC의 출범과 90년대 이후의 근대성/(탈)식민성 기획은 서로 밀접한 상응성이 있다. 인식론적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적 ‘개인적 인권’ 개념 대신에 국경을 넘는 유토 피아적, 연대적 성격의 ‘인류의 공동자산’의 개념 제시이다.

노동자, 여성, 종족적, 성적 소수자들의 고통의 해방은 질서(식민주의)와 카오스(연대) 사이의 투쟁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인류의 공동자산”의 독트린은 자연자원의 채굴의 이익에 있어 일국의 점유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참여로 이익의 국제적 분배를 지향한다.(Santos 2007, 178-184)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국경을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대중에 대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프로젝트를 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에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독특한 발전모델은 ALBA와 차베스 혁명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유럽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만의 통합과 단결의 흐름은 특히 CELAC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적 행보의 예로서 최근 UN에서의 팔레스타인의 (준)국가 승인에 대한 CELAC의 지지를 들 수 있다.¹⁷⁾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식민주의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유럽중심주의에 의한 위계 서열적 차별성(식민성)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세계체제 안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주도적으로 “남-남 협력”에 나설 것임을 가리킨다. CELAC은 남미은행(Banco del Sur), 남미 대안 텔레비전(Telesur), 남미와 카리브 국가들의 사회발전을 위해 설립된 다국적 석유회사인 페트로 아메리카(PetroAmerica), ALBA 등과 상호 연계되어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을 가속화 시켜 세계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 블록의 하나가 되려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사회발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다(Ismi 2012, 16). 꼬레아 예과

17) 2012년 11월 29일,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의 (준)국가 승인이 통과되었는데 이 당시 CELAC이 적극 지지했다. <http://www.telesurtv.net/articulos/2012/11/29/palestina-ingresa-como-estado-observa...>(2013.2.5.)

도르 대통령은 CELAC 안에 별도기구를 통해 회원국 각국의 '사회정의'와 '인권'의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Pearson 2011, 2). 또한 CELAC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중도 좌파 정부들에 의한 사회정책의 강화도 지지한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적 위상과 사회정책의 강화를 위해 좌파정부들과 중도좌파 정부들의 협력을 전체 라틴아메리카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이 CELAC이다(Ismi 2012, 16).

ALBA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합리성의 추구보다 공동체적 상호 연대를 중시하고 UNASUR는 남미의 군사적 동맹과 의회 협력을 중시한다(Ismi 2012, 17; 안태환 2011). 이 둘의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공동체적 포럼이 바로 CELAC이다. 그리고 ALBA와 CELAC 모두 차베스가 주도한 것이다. UNASUR와 CELAC 양자의 차이는 전자에서 제외되었던 멕시코와 파나마가 합류한데 있다. 특히 멕시코는 최근 지배적 정당인 "제도혁명당"(PRI)이 집권하면서 실용적 시각에서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뿌에블라-파나마 플랜"(PPP)¹⁸⁾등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에 포섭되어있지만 CELAC 창설에 적극적으로 합류한다. 미국과의 사이의 이민문제와 마약문제 등 현안 해결의 어려움 및 미국과의 통상 특혜조치의 어려움도 이 같은 결정에 일조했다고 인식된다(Dos Santos 2013, 3). 그리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멕시코가 겪고 있는 국내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1994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어 멕시코와 중미 지역은 신자유주의 영향권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하지만 남미는 2000년부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흐름이 형성된다. 2000년¹⁹⁾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남미 통합의 분위기를 가속화하여 브라질 주도

18) 멕시코가 주도적으로 중미와 협력하는 상기 협정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콜롬비아를 2006년에 가입시켰다. 멕시코의 남부 9개 주와 중미 7개국에 가입되어 있다(Posada 2008, 377).

19) 2000년에 브라질이 주도한 남미 통합의 선언인 "브라질리아 선언"이 나온다. 이 당시 맥락은 브라질의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여 나온 것이다. 2001년에 볼리비아의

하에 2004년 “남미 국가 공동체”(Comunidad Suramericana de Naciones, CSN)가 형성된다. 그리고 2007년 4월에 인프라 통합과 남미의 안보를 중요시하는 “남미국가연합”(UNASUR)으로 대체된다(Posada 2008, 447-449). 중요한 것은 2007년에 갑자기 UNASUR가 출범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2년부터 에콰도르의 “과야킬 컨센서스”가 나왔다는 점이다. “과야킬 컨센서스”에서 “남미 지역 인프라 통합 구상”(IIRSA)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200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경제위기를 거친 후 중도 좌파의 끼르치네르 정권이 수립된 것이 라틴아메리카 통합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든다. 다시 말해, MERCOSUR의 중심 국가들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면서 내부적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안데스 공동체”(CAN)를 끌어안은 것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접근이 실용적 시각으로부터 전진된 것이다.

UNASUR에서 핵심적인 것은 “남미 대중의 경제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상호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다(Posada 2008, 448-449). ‘남미 대중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정책 흐름을 강하게 비판하는 맥락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 지역통합운동과 CELAC이 다른 맥락은 전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면서 각국의 경쟁적 국가발전을 중요시한다면 후자는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의 상호 보완과 연대’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노력의 조율을 하기로 합의하였다(Posada 2008, 447). “남미의 안보와 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이 인식된 것이다. 이 선언이 UNASUR의 핵심적 가치를 대변한다. 베네수엘라가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강국이란 의미에서 현재의 에너지를 통한 라틴아메리카 통합은 실현 가능성을

라파스에서 MERCOSUR, 칠레, 안데스 공동체와 수리남, 가야나 등의 남미 통합을 위한 제 1차 외상회의가 열렸다. 2002년에 에콰도르의 과야킬에서 남미 정상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2004년에 페루의 꾸스코에서 남미 정상회의를 통해 “남미 국가 공동체”(CSN)선언이 나오고 2005년 브라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화된다(Posada 2008, 447-448).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트로수르(Petrosur 2004년), 페트로안디나(Petroandina), 페트로까리베(Petrocaribe 2005년)를 거쳐 페트로아메리카(Petroamerica)를 지향하고 있다(Posada 2008, 449). 원래 CELAC이 설립되기 전에 에너지 분야에서 이 같은 차베스의 대안적 리더십과 경쟁하는 즉 멕시코-중미(니카라과 제외)-콜롬비아로 연결되는 또 다른 에너지 통합계획(2006년)안이 나왔으나 이제 서로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Posada 2008, 453). UNASUR와 CELAC이 상호 연결되는 맥락을 볼 때, 바로 이 ‘에너지 주권’의 확립이 탈식민적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핵심조건임을 구스타보 라우드(Gustavo Lahoud)는 지적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맥락에서 에너지 주권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행동과 사상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서 우러나온 핵심적 개념이다. 그 뿌리는 서로 연대하고 보완하는 삶의 방식의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공동의 기억에서 공유되어온 것이다.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가 독립했을 때부터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의 기획은 정치적 의지로서 표현되어 온 것이다. 비록 세계 체제가 우리에게 부과한 현실적 조건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어도 이를 위한 시도는 끊임이 없었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은 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 존재의 깊은 의미에서 “암묵적인 약속”의 존재였다.(Vázquez 2006, 64 재인용, 강조는 필자)

에너지 주권이야말로 라틴아메리카 대중이 국경을 넘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공동의 기억에서 출발하는 집단적 추동력이다. 그러므로 에너지 분야의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은 세계체제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고 차베스의 리더십에서 드러나듯이 일국을 넘는 경제의 상호 보완성과 대중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전통적 라틴아메리카 통합과 차별되는 핵심 전략이다.

CELAC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기구(OAS)를 장기적으로 대체 또는 병행하는 의미를 가진다. 미주기구는 50, 60년대의 냉전시기의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배의 정책적 기능을 수행했다. 지금은 그 기능이 미약해졌다. 이렇게 명실상부하게 유럽(미국 포함)세력이 배제되고 정치, 사회적으로 카리브의 모든

국가들로 통합된 기구가 출범한 것은 500년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2일의 CELAC 창립총회에서 니카라과의 대통령인 다니엘 오르테가는 CELAC의 출범이 “몬로 독트린에 대한 거부”(Isimi 2012, 16)²⁰⁾라고 했다. 왜냐하면 CELAC의 출범이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 주도의 “미주기구”(OAS)에 대한 대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CELAC의 목적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지배와 싸우려는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이다(Pearson 2011, 1).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과 주권의 재확인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기동안 미주기구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금융적,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도구였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인들 자신들의 주도로 국제관계에서 더욱 평등한 지향점을 보여주려 한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에 CELAC은 유럽공동시장(UE)과 양 블록 통합 정상회의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가졌다.²¹⁾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되 종속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연대’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상호 연대의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리하여 정상회의 합의 중에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통상, 투자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쿠바 봉쇄를 비난하였다(Pearson & Robertson 2013, 2). 즉, CELAC은 단순한 시장 확대의 통합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말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 2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의 연대를 밝히고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와 FARC 극좌 게릴라와의 대화를 지지하며 시리아의 분쟁사태에 대한 우

20) 몬로 독트린은 1823년에 미국에 의해 발표된 선언으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더 이상의 착취를 막고 그 대신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권에 놓으려는 것이었다.

21) 최근의 유럽의 경제위기의 여파로 양 블록의 협력이 기대만큼 낙관적이지는 못하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라틴아메리카가 유럽에 대해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www.rebellion.org/noticia.php?id=162506>. (2013.1.22)

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²²⁾문제와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Pearson & Robertson 2013, 1).

이렇게 라틴아메리카가 통합을 지향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 맥락은 라틴아메리카의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현재 베네수엘라를 필두로 약 11개의 좌파, 중도좌파의 정부들이 집권하고 있다. 그런데 그 헤게모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도 안정되고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2008년의 월가의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 위축과 실업률 증가 등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나 2010년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평균적 경제성장률은 6% 이상이다. 미국 경제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다. 최근 이십년 사이에 빈곤율이 최하로 낮아졌다(Ismi 2012, 16-17). 이는 좌경화된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의 사회정책이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거꾸로 90년대 초반까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처방이 불합리했음을 보여준다. 흔히 말하는 상식과 반대로, 복지가 늘었으면서도 성장도 같이 는 것이다. 또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공공지출을 줄이는 것과 반대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늘린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이전의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무역추진 방식이 미국시장 진출 등 대외 지향적이었던 것과 달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의 역내 교역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메르코수르 등이 그렇다. CELAC의 출범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과 미국의 불안정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상을 늘리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CELAC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 통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연대’의

22) 환경이라는 단어 대신 생태로 표현한 맥락은 현재의 CELAC이 인간과 자연의 근대적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성찰과 전환이라는 문명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말에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 2차 정상회의에서 차베스는 공식 레터를 통해 “우리는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어머니인 빠차마마(라틴아메리카 대지)를 닦기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Pearson & Robertson 2013, 1).

정치를 실행하려는 것이라고 에보 모랄레스는 강조했다(Ismi 2012, 17). 이 같이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라틴아메리카의 성장과 안정의 핵심어는 바로 ‘연대’이다. 즉, 지역 통합의 목적이 통상 확대를 통한 시장(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대중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는 것이다. ALBA와 같이 빈곤의 축소, 문맹의 퇴치,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의 광범한 사회적 공공성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CELAC은 2015년까지 문맹을 퇴치할 목표를 정하고 있고 빈곤과 기아를 해결할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이미 라틴아메리카의 11개 좌파 정부들에서 이룩한 사회정책의 성과와 동일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보다 더 건강하고 교육받은 대중을 동력으로 하는 지역통합을 추구하고 있다(Ismi 2012, 17). 대중을 매우 중시함을 알 수 있다.

CELAC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우파 집권의 세 나라(멕시코, 콜롬비아, 칠레)도 CELAC의 명분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도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좌파 우위의 정치지형에 적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시몬 볼리바르에서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대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우파 국가들도 자국 내에서 빈곤 감소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공통의 사회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과의 연대

CELAC은 유럽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연대를 중시한다. 앞서 지적한 탈근대적 전환의 의미와 맞물려 2008년 월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CELAC의 출범은 라틴아메리카의 고유한 가치관인 ‘연대’를 통해 경제적 민주주의의 번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연대가 중요한 맥락은 비관적으로 표현하면 18세기 이후에 유럽이 주도한 자유주의와 인식론적 근대성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현 국면이 산토스와 라끌라우가 각각 지적한대로 “사회적 파시즘”(Tamayo 2011, 42 재인용) 또는 “집단

적 자살”(Pearson & Robertson 2013, 1 재인용)의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80, 90년대에 빈곤층과 극빈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지형에 급진적인 새로운 사회운동과 좌파 정부들이 헤게모니를 차지하면서 극빈층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2004년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칠레를 예외로 하고 극빈층 지수가 줄었다 (Moreano 2011, 165).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에콰도르의 꼬레아를 필두로 정부 정책에서 대중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공공성 정책이 강화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의 절정은 CELAC의 차베스 개막식 연설에서도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배제된 ‘대중’과 연대하려고 한다.

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의 원인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론으로부터의 단절과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²³⁾ 이런 주장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중의 하나가 CELAC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 중심적 근대성의 개념에 대해 전환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CELAC은 유럽 중심적 시각의 개인적 인권 대신에 사회적 인권과 행복권을 ‘정의’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또는 코민적 인권”에 대해 안토니오 네그리의 주장을 들어보자.

90년대 이후의 라틴아메리카의 변화는 교통, 생태 환경, 교육, 사회적 공존, 안전, 도시 문제 등에서 코민적 가치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문제도 거의 절반의 비율이 비공식 노동이다. 이를 사회적 노동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코민적 삶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로써 “코민적 인권”의 구성이 결정적이다. 근대적 이분법 즉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대중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이 출현하고 재구성되고 있다.(Negri 2006, 243)

CELAC 출현의 배경에는 호세 마르띠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메리카”(Nuestra América) 담론이 가지는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대지에 뿌리박

23) 인식론적 단절과 전환의 사례 중에는 1960년대의 종속이론의 문제의식도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종속이론은 라틴아메리카가 유럽의 중심부에 종속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없는 ‘저발전’이 지속된다고 주장했다면 2000년대 이후의 차베스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라틴아메리카가 통합하지 못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저발전’이 계속된다고 인식하고 있다(Pearson & Robertson 2013, 1재인용).

은”²⁴) 강한 감성적 연대가 있다. 이 집단적, 감성적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적 인권”의 개념을 산토스는 “새로운 코스모폴리탄 인권”(Santos 2007, 211)으로 호명한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의 에너지 자원의 이익을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빈곤한 대중을 위해 사용하는 ALBA, 빠뜨로카리베, 빠뜨로아메리카 등의 프로젝트들이 출현한 것이다. 에너지 자원을 ‘빠차마마’로 불리는 ‘라틴아메리카의 대지’ 위에 사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의 ‘공동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권”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급진 민주주의의 다양한 실험의 절합을 통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의 글로벌한 상호 의존정부들의 ‘실용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무슨 이데올로기적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라틴아메리카의 공간에서 기존의 미국에 대한 종속적 지위의 라틴아메리카의 이미지를 깨트리면서 정치와 경제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 및 사회구조의 변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집단적 주체와 “사회적 인권”이 출현한 것이다(Negri 2006, 234-243). 차베스는 “사회적 인권” 확보의 전략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역내의 전체 대중의 문명 퇴치와 기아 퇴치 프로그램을 주장하고 있다(Pearson & Robertson 2013, 1 재인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지역통합운동에서 ‘대중의 이익 확보’는 거의 추상적인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외교적 수사에 머물렀던 경우가 많았고 주로 기업의 이익과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과 성장에만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CELAC은 경제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와 자원을 외국 시장 지향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거대한 시장의 창설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노동의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에 라틴아메리카가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세계의 경제, 사회, 생태위기 앞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라틴아메리카 대중이 맡게 될 것이다(Dos

24) 이 같은 대중의 강한 감성적 연대의 힘을 통한 역사의 진보와 자유에 대한 꿈을 표현한 대표적인 시인이 파블로 네루다라고 생각한다.

Santos 2013, 3-4). 즉,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대중의 주도적 참여’가 핵심 전략이다. 20세기 내내 자유주의적 근대성의 패러다임에서는 대중을 엘리트가 계몽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지식도 규율적 지식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21세기의 라틴아메리카의 실천적, 인식론적 변화가 지향하는 방향은 규율적 지식과 해방적 지식의 병행을 추구한다. 이 같은 방향 전환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연대에 의한 지식”(Santos 2007, 177)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라틴아메리카 대중이 너무 힘들게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당해오면서 집단적, 감성적 연대와 ‘사회적 해방’의 중요성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은 개별적 주체나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아메리카”라는 꿈이 항상 강렬했다. 따라서 항상 라틴아메리카는 ‘과도성’의 국가였고 흔들리는 경계적 지식과 위협에 익숙한 국가였다. 그리고 오랜 고통과 억압을 겪어오면서 견디어 내는 힘이 강해졌다. 이 힘으로부터 관념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육체적 낙관주의가 늘 “집단지연대의 가능성” 바라보고 있었다.(Santos 2007, 211)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이 오랜 잠재적 역사의 표층을 뚫고 라틴아메리카 역내에서 강한 연대성을 보이게 된 맥락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할 대안적, 대항 체계모니적 에너지를 보여준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사회운동 덕분이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체성의 정치’와 일상생활을 중시하는 ‘문화연구’이다.²⁵⁾ 본 논문의 주제 밖이라 자세한 언급은 자제하지만 이 둘은 유럽의 맥락과는 매우 다른 진보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멕시코의 사빠띠스따 운동, 브라질의 “토지 없는 농민운동”(MST),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농민, 원주민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25) 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이념적이고 계급 투쟁적인 과거의 사회운동을 비판하고 성, 젠더, 종족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정체성의 정치’가 출현한다. 얼핏 보면 유럽에서의 신 사회운동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유럽에서는 일반대중도 중간계급 주도의 신 사회운동의 틀에 포섭되어있다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위의 ‘정체성의 정치’가 문화연구로 진행되면서 민주주의의 심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대중 중심의 반 신자유주의적 새로운 사회운동과 상호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Moreano 2011, 179-181).

농민, 원주민 운동이 강력한 반 신자유주의 운동으로 대륙 차원에서 “대중의 강한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Moreano 2011, 179-181). 차베스 혁명을 이해하는 핵심어도 ‘배제되고 소외된 대중의 주인공적 참여’에 있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기구들이 자유무역의 증진과 기업가들이 주인공이 되는 통합이었다면 CELAC은 사회정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다. 기존의 지역통합 방식은 역내 국가들 사이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실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각 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점에서 철저하게 자유주의적이고 ‘근대’적이었다. 이에 비해 CELAC은 각국의 개별적 이익의 범주를 넘어서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EU가 현재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 상황도 근대성의 틀 안에서 경제적 통합에만 치우쳐왔기 때문이다. CELAC과 같이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삶을 중시하는 맥락을 따라 사회 문화적 통합을 지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EU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루과이 정상인 호세 무히카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약자 보호의 사회정책에서 베네수엘라가 다른 나라들을 선도하며 통합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의 무료 개안 수술, 석유의 특별가격 지원, 역내 관광의 진흥, 라디오 수르, 펠레 수르, 시몬 볼리바르 위성 등 다양한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통합운동을 베네수엘라가 주도했다(Pearson 2011, 2).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차베스 혁명의 핵심 전략중의 하나가 대중과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라틴아메리카 통합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눈에 잘 안보이더라도 CELAC의 동력은 대중과의 감성적, 문화적 연대이다. 예를 들어, 2011년의 카라카스 CELAC 회의 때도 회의장 바로 옆에서 16개 회원국의 연극, 시, 조각, 도서, 미술전시회, 시네마 포럼, 음식 페스티벌 등이 개최됨으로써 이 연대를 느낄 수 있었다(Pearson 2011, 3). 그리고 최근 차베스는 암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질환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도되었

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수 십 개의 사회운동세력은 차베스의 쾌차를 빌면서 연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 사회운동세력들 중에는 “ALBA를 위한 아르헨티나 사회운동의 장”(Capítulo Argentina de los Movimientos Sociales hacia el ALBA)이 있다.²⁶⁾ 또한 2013년 1월 말에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유럽연합과 CELAC의 통합 국제회의와 병행하여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대중이 중심이 되는 사회운동단체들의 “민중 정상”회의도 열릴 것이다. 상기 회의에는 약 60개국의 정상들이 모일 것이고 이 회의에서 다음번 의장국 지위를 쿠바에 넘길 것이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려는 라틴아메리카가 대등한 수준에서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단체들의 회의에서는 사회정의와 생태정의, 인권, 원주민 권리 옹호, 국제 연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며 생명과 자연의 상업화에 반대할 것이다. 이들 사회운동단체들의 회의에서 다루어진 요구들과 제안들은 CELAC 정상회의에서 또한 다루어질 것이다(Servindi 2013, 1). 사회운동단체들과 CELAC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CELAC의 행정적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배제’ 대신에 ‘포용’이 강조되며 일반 대중과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대규모 국제회의의 경우, 회의장과 기자실은 나뉘어져서 기자실은 회의장 밖에 배치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CELAC의 경우 회의장 안에 대규모 기자실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카라카스 회의의 경우, 회의가 생중계됨으로써 베네수엘라 시민들과 전세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과거의 다른 지역 통합기구, 예를 들어 미주기구(OAS) 등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²⁷⁾

IV. 나가는 말

차베스가 중심적 역할을 한 CELAC을 놓고 특히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26) Juan Manuel Karg, “La enfermedad de Chavez y el futuro de Venezuela”, <http://www.aporrea.org/actualidad/a155706.html>.

27) Pearson, “Latin American no longer for sale: the New CELAC Poles Apart from the OAS”, 2011, p. 1, [http://venezuelanalysis.com/print/6671.\(2012.5.9.\)](http://venezuelanalysis.com/print/6671.(2012.5.9.))

것을 두고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승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CELAC의 출범을 오랫동안의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적 관계의 단절 즉, 위계 서열적 차별성과 발전/저발전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탈·식민·적 통합운동으로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좌파에 의한 역사의 진보로 호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은 유럽 중심적 일직선적 진보의 시각에서 멀리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의 무의식적 삶의 방식에 녹아있는 강력한 ‘연대’의 힘이 새로운 라틴아메리카를 추동한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문명적 전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항상 라틴아메리카의 대중과 지식인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자율적 독립과 해방을 꿈꿔왔다. 특히 60년대부터 체 게바라의 극단적 휴머니즘, 해방신학, 해방철학, 종속이론 등의 주장이 있어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반면에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사상은 아무런 해방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북’의 자유주의 사상에만 몰입되어왔다. ‘소비’를 핵심어로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빈곤한 대중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왔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이들 빈곤한 대중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스스로 출현했고 다양한 급진적 좌파 정부들의 헤게모니 장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 새로운 사회운동세력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새로운 좌파정부들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 중의 중요한 전략이 바로 ‘라틴아메리카 통합’이다. 이 때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은 유럽연합과 같은 금융정책의 제도적, 화폐적인 통합까지 상정하는 강도 높은 통합이 아니라 각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느슨한 연합적 통합을 말한다. 단일한 통합이 아니라 느슨하면서도 여유 있는 ‘연대’가 핵심어이다.

CELAC으로 대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통합운동은 사회정의를 위한 역내 국가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베네수엘라 등 에너지 강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인류 공동자산”의 개념과 유럽중심주의적 근대성의 개인적 인권 대신 “사회적 인

권”의 개념이다. 즉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연대적 실천의 움직임과 함께 라틴아메리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자율적 독립과 해방의 유토피아를 향한 유럽중심주의로부터의 탈‘식민’적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 대중과 엘리트들이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근대성과 ‘자유주의적 제도화’의 한계를 뚜렷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인식론적, 실천적 노력의 수십 년 쌓아올린 성과가 2011년 12월 CELAC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정희(2012), 「라틴아메리카의 ‘신’지역주의 리더십 연구: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25권 3호, pp. 73-101.
- 김달관 · 조영현(2012), 「에콰도르의 탈식민적 국가개혁으로서 수막 카우사이: 실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4권 1호, pp. 21-56.
- 김은중(2009a),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과 국가 기능의 재편」, 라틴아메리카연구, 22권 2호, pp. 147-178.
- _____(2009b), 「탈식민성과 라틴아메리카 연구」, 이베로아메리카, 11권 2호, pp. 129-170.
- 로렌스 화이트헤드(2008), 「언제부터 라틴아메리카가 근대적이었는가?」, 니콜라 밀러/스티븐 하트(편저),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옮김, 그린비, pp. 271-293.
- 안태환(2009),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탈)식민성 기획과 상호문화성의 상응성」, 라틴아메리카 연구, 22권 3호, pp. 95-128.
- _____(2011), 「ALBA: 탈식민성과 ‘선물주기’방식의 라틴아메리카 통합운동」, 스페인어문학, 59호, pp. 333-356.
- _____(2012a), 「인식론적 상상력의 전복을 통한 민주주의의 재구성-보아벤투라 데 소우사 산토스의 비판이론을 중심으로」, 코기토, 71호, pp. 467-499.
- _____(2012b),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의 시각으로 본 차베스 체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3권 2호, pp. 89-123.
- 엔리케 두셀(2011), 『1492년, 타자의 은폐』, 박병규 역, 그린비.
- 윌터 미놀로(2013),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김은중 역, 그린비.

- 웨인 스미스(2012),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새로운 시대로』, 쟈니퍼스 블랙 편저, 『라틴아메리카 문제와 전망』,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옮김, 이담북스, pp. 363-404.
- Briceño Ruiz, José(2006), “La integración hemisférica y el interregionalismo en la estrategia comercial externa de América del Sur,” *Aldea Mundo*, Año 11, No. 21, mayo-octubre 2006, pp. 39-48.
- De la Barra, Ximena & Dello Buono, R.A.(2012), “From ALBA to CELAC,”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45, No. 2, pp. 32-36.
- Dos Santos, Theotonio(2013), “Integración, fenómeno de larga duracin,” www.rebelion.org/noticia.php?id=163015, pp. 1-4.(2013.1.30.)
- Fell, Claude(2009), *Jose Vasconcelos Los años del Aguila*, México: UNAM.
- Ismi, Asad(2012), “Latin American countries deepen integration, defy the United States,” *The CCPA Monitor*,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pp. 16-17.
- Karg, Juan Manuel(2011), “Algunas conclusiones luego del nacimiento de la CELAC,” <http://www.rebelion.org/noticia.php?id=140684>, pp. 1-2.(2012.2.28.)
- _____(2012), “La enfermedad de Chavez y el futuro de Venezuela,” <http://www.aporrea.org/actualidad/a155706.html>.
- Kellogg, Paul(2007), “Regional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Dawn of an Alternative to Neoliberalism?,” *New Political Science*, Vol. 29, No. 2, pp. 187-209.
- Lander, Edgardo(2004), “¿Modelos alternativos de integración? Proyectos Neoliberales y Resistencias Populares,” *Osal*, Vol. 5, No. 15, pp. 1-8.
- Maldaner, Luis Felipe(2010), “Mercosur-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rom the Brazilian Perspective,” *라틴아메리카 연구*, 23(1), pp. 31-57.
- Mignolo, Walter D(2005), *The Idea of Latin America*, London: Blackwell.
- Moreano, Alejandro(2011), “Neoliberalismo, cultura y sociedad,” en Eduardo Gruner(ed.), *Nuestra América y el Pensar Crítico*, Buenos Aires: CLACSO, pp. 143-186.
- Mujica, Pepe(2011), “No debemos cometer el error del dogmatismo,” www.celac.gob.ve/index.php?view=article&catid=1%3Aactualidad&cid=277%3... (2012.12.26.)
- Negri, Antonio & Cocco, Giuseppe(2006), *GlobAL*, Buenos Aires: Paidós.
- Pearson, Tamara(2011), “Latin American no longer for sale: the New CELAC Poles Apart from the OAS,” p. 1. <http://venezuelanalysis.com/print/6671>.(2012.5.9.)
- Pearson, Tamara & Robertson, Ewan(2013), “CELAC Strengthened by Second Annual

- Summit,” <http://venezuelanalysis.com/print/7652>, pp. 1-2.(2013.2.4.)
- Posada, Edgar Vieira(2008), *La formación de espacios regionales en la integración de América Latina*, Bogota: Convenio Andrés Bello.
- Quijano, Anibal(2000), “Colonialidad del Poder y Clasificación Social,”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I, 2, Summer/Fall, pp.342-386.
- Santos, Boaventura de Sousa(2005), *El Milenio huérfano*, Madrid: Trotta.
- _____(2006), *The Rise of the Global Left*, New York: Zed Books.
- _____(2007), *Conocer desde el Sur*, La Paz: Plural.
- _____(2009), “Reinventando la emancipación social,” en *Cuadernos del Pensamiento Crítico Latinoamericano*, No. 18, marzo, Buenos Aires: CLACSO, http://www.medelu.org/IMG/pdf/CLACSO_SOUSA_SANTOS_p25.pdf
- Servindi(2013), “Organizaciones sociales celebran Cumbre de los Pueblos paralela a la CELAC-UE,” <http://www.rebellion.org/noticia.php?id=161736>. (2013.1.9.)
- Soliz Rada, Andrés(2004), “América Latina: la integración frustrada,” <http://www.rebellion.org/noticia.php?id=9000>, pp. 1-2.(2013.2.5.)
- Tamayo, Juan José(2011), “Boaventura de Sousa Santos: Hacia una sociología de las Ausencias y de las Emergencias,” *Utopía y Praxis Latinoamericana*, 16(54), Universidad de la Zulia, Venezuela, pp. 41-49.
- Teichman, Judith(2008), “Globalización e integración: visiones en pugna,” *Nueva Sociedad*, No. 214, Caracas, pp. 124-132.
- Vázquez, Belin(2006), “Del proyecto de unidad bolivariana a la alternativa integracionista sudamericana,” *Revista de Artes y Humanidades Unica*, Maracaibo: Universidad Católica Cecilio Acosta, Vol. 7, No. 16, pp. 56-84.
- Zopel, Christoph(2008), “La integración sudamericana como requisito para la independencia,” *Nueva Sociedad*, No. 216, julio-agosto de 2008, pp. 25-34.

안 태 환

부산외국어대학교
tomy30@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년 3월 27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7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4일

CELAC: Latin american decolonial integration movement

Tae-Hwan Ah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hn, Tae Hwan (2013), CELAC: Latin american decolonial integration movement.

Abstract CELAC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 was established in 2011 and has been characterized as a decolonial integration movement. That is to say, it is designed towards a independent position from the hierarchical World-System made with Eurocentrism. We would consider it as a great advance of the decolonial integration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 after the ALBA of 2004 and UNASUR of 2007. CELAC was founded by Chavez of Venezuela and Brasil and it is not an institutional-judicial organization but a forum based on solidarity.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integration movements as like CAN which were moved by the states and the enterprises. CELAC is moved by the social movement's power. The peculiar thing is that have been excluded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have been included all the countries around Latin America and Caribbean ones including Cuba first time in the longrun 500 years' history. CELAC is a organization of forum for the integration such as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ties to be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World-System. Especially CELAC has taken its position very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countries of Europ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also it is now showing the epistemological revolution in a sense of that the South would be the North. Also it has the meaning of 'post-latin' in a sense of breaking the internal colonialit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CELAC has a strong solidarity with the people exclud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human rights'. And the latin american people themselves has promoted CELAC forwards with the invisible collective power of solidarity maintained for a long time.

Key words Decoloniality, post-Latin America, independent position of Latin America from 'Europe', solidarity with the people/social right